

국어 영역

제 1 교시

[1 ~ 3] 다음은 '세마포르'에 대한 강연의 일부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여러분, 과거에는 먼 곳까지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어떤 시각 통신 수단을 사용했을까요? (청중의 대답을 들은 후 고개를 끄덕이며) 네, 그렇습니다. (화면을 가리키며)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봉화가 있었습니다. 봉화는 수 킬로미터 간격으로 세운 봉화대에 불을 붙여 메시지를 빠르게 전달할 수 있긴 했지만, 특정한 몇 가지 메시지만 전달할 수 있다는 제약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제약에서 벗어난 시각 통신 수단이 바로 오늘 말씀드릴 세마포르입니다. 세마포르가 무엇인지 궁금하시죠?

1792년에 프랑스에서 발명된 세마포르는 다양하고 구체적인 메시지를 먼 곳까지 전달할 수 있는 획기적인 시각 통신 수단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세마포르는 어떤 방식으로 메시지를 전달했을까요? (화면을 가리키며) 이 화면은 세마포르에 쓰인 탑의 구조를 나타낸 것입니다. 탑의 지붕에는 나무 기둥이 세워져 있는데, 이 기둥 꼭대기에는 선풍기 날개처럼 회전이 가능한 긴 널빤지가 하나 매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긴 널빤지 양 끝에 각도 조절이 가능한 짧은 널빤지가 매달려 있습니다. 이 널빤지들의 각도를 각각 조절하면 여러 형태를 만들 수 있는데, 이렇게 만들어진 각각의 형태들이 로마자나 숫자의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청중의 표정을 살피고) 여러분의 표정을 보니 잘 이해하지 못하신 것 같네요. 자, 여기에 제시된 예를 같이 보시죠.

(화면을 가리키며) 화면에 보이는 것은 각각 로마자 A와 숫자 7을 의미하는 형태입니다. 긴 널빤지가 수평을 유지한 상태에서 양쪽의 짧은 널빤지가 수직으로 세워져 있는 형태는 A이고요, 긴 널빤지와 짧은 널빤지 모두가 수평인 형태는 7입니다. 세마포르는 이러한 널빤지의 형태를 탑에서 탑으로 시간차를 두어 차례대로 전달해 나가는 방식을 통해 글자를 하나씩 전달하였습니다. 이 방식으로 (손가락 세 개를 펴며) 1분에 3개의 글자를 전달할 수 있었는데, 200여 킬로미터 떨어진 곳까지 글자 100개를 전송하는 데 채 1시간도 걸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다만 산과 같은 고지대에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가시거리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전송 효율이 떨어진다던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세마포르는 유용한 시각 통신 수단으로 자리매김을 했습니다. (화면을 가리키며) 화면에서처럼 수 킬로미터 간격으로 500여 개에 이르는 송수신 탑을 세워 5,000 킬로미터에 달하는 곳까지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었는데, 프랑스는 세마포르를 활용해 긴박한 상황을 단시간에 멀리까지 전파할 수 있었기 때문에 다른 유럽 국가들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1. 위 강연자의 말하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화제와 관련된 수치를 제시하여 청중의 이해를 돕고 있다.
- ② 청중의 질문에 대답하면서 청중과 상호 작용을 하고 있다.
- ③ 앞부분에 화제를 제시하며 청중의 호기심을 유발하고 있다.
- ④ 비언어적 표현을 활용하여 의사 전달의 효과를 높이고 있다.
- ⑤ 다른 대상과 비교하는 방법으로 화제의 특성을 밝히고 있다.

2. 위 강연에서 제시했을 시각 자료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불을 이용한 봉화


○ 장점: 빠른 메시지 전달

○ 단점: 특정 메시지만 전달




② 세마포르 탑의 구조

긴 널빤지, 짧은 널빤지, 나무 기둥




③ 글자를 나타내는 방식

A, 7



④ 세마포르를 대체한 모스 부호


A ●-
B ●●●
C ●-●-
D ●●●



⑤ 프랑스의 세마포르 통신망

○ 송수신 탑: 500여 개

○ 통신 선로: 약 5,000 Km



3. 위 강연을 들은 학생이 <보기>와 같이 반응했다고 할 때, 학생의 듣기 전략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 기 >

“산꼭대기에서 바라보는 아름다운 경치를 기대하며 정상에 올랐는데 안개 때문에 바로 앞에 있는 산도 잘 안 보여서 아쉬웠던 적이 있었어. 세마포르에 이용된 탑이 수 킬로미터 간격으로 세워졌기 때문에 만약 안개가 껴다면 잘 안 보였을 것 같아. 가시거리가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세마포르의 전송 효율이 떨어진다고 한 것이 그런 의미이겠구나.”

- ① 강연 내용 중에서 사실과 다른 부분을 판단하며 비판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 ② 강연에 언급된 내용을 자신이 직접 경험했던 일과 관련지어 이해하고 있다.
- ③ 강연의 내용을 구조적으로 파악하여 전체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고 있다.
- ④ 강연을 듣기 전에 지니고 있었던 의문을 강연 내용을 통해 해소하고 있다.
- ⑤ 강연의 내용이 강연 목적에 부합하고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4~7] (가)는 인터뷰이고, (나)는 (가)를 바탕으로 학생이 교지에 쓰기 위해 쓴 글의 초고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가)

학생 : 안녕하세요. 저는 ○○고에 다니는 △△입니다. 조선 왕릉과 관련하여 장묘 전통, 공간 구성, 석물 등에 대해 학예사님의 설명을 듣고자 찾아왔습니다.

학예사 : 반갑습니다. 직접 보며 설명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성중이 모셔져 있는 능까지 걸으면서 이야기 나눌까요?

학생 : 네, 좋아요. 조선 왕릉이 유네스코 세계 유산으로 등재 되었는데요, 등재 기준의 내용 중에서 자연 친화적 장묘 전통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학예사 : 조선은 자연 훼손과 인위적인 구조물 배치를 최소화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왕릉을 조성했습니다. 봉분을 수십 미터 높이로 조성하거나 지하에 궁정과 같은 공간을 만들기도 했던 중국과 비교하면, 조선 왕릉의 자연 친화적 성격이 돋보입니다.

학생 : 그렇군요. 예전에 건원릉이나 광릉에 갔을 때도, 왕릉 이라기보다는 자연 속에 있는 것과 같은 편안함을 느꼈 습니다. 이곳 선릉도 자연 친화적 공간이라는 인상을 받 았습니다.

학예사 : 기능적 필요에 의한 건축물만을 최소한으로 배치하고 자연과의 조화 속에서 왕릉을 조성했기에 그런 것이지요.

학생 : 조선 왕릉은 진입 공간, 제향 공간, 능침 공간으로 구 분된다고 알고 있는데, 세계 유산 등재 기준 내용에 포함 되어 있는 공간 구성의 독창성과 어떤 관련이 있나요?

학예사 : 여기 선릉을 예로 들어서 설명드릴게요. 아까 지났던 홍살문까지가 진입 공간, 홍살문에서 여기 정자각까지가 제향 공간, 그리고 저 위가 왕릉의 핵심 공간인 능침 공 간입니다. 그러면 질문 하나 할게요. 정자각까지 오는 동 안 능침 공간이 잘 보였나요?

학생 : 아니요. 능침 공간은 지대가 높은 곳에 조성되어 있는 데도 정자각에 가려서 잘 보이지 않았어요.

학예사 : 바로 그런 점이 조선 왕릉이 가진 공간 구성의 독창 성과 관련됩니다. 능침 공간으로 올라가서 설명해 드릴게 요. 대개 정자각에 도달할 때까지 능침 공간은 참배객에 게 잘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있는 능침 공간에서 는 왕릉을 전체적으로 조망할 수 있습니다. 공간에 따라 지면 높이를 다르게 하여 조망 범위가 다르도록 했기 때 문입니다. 그리고 제향 공간의 건축물인 정자각의 배치를 활용하여 능침 공간을 향한 참배객의 시야를 제한하였습 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공간의 위계를 만들어 능침 공간 의 권위와 성스러움을 확보했습니다. 이러한 점이 조선 왕릉의 독창성입니다.

학생 : 조선 왕릉은 공간에 따라 조망 범위를 다르게 하는 방 식으로 공간의 위계를 조성했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학예사 : 맞습니다. 잘 이해했네요.

학생 : 감사합니다. 마지막 질문인데요, 능침 공간에 배치 된 석물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학예사 : 지금 보이는 것처럼 능침 공간에는 예술적 가치 가 높은 석물이 배치되었습니다. 봉분에 병풍석과 난간석을 둘렀고, 봉분 주변에 혼유석, 양 모양과 호 량이 모양의 석상 등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장명등, 문신과 무신 형상의 석인상, 석마 등을 배치하여 질 서 있는 공간미를 보여 주었습니다.

[A]

학생 : 설명해 주신 내용을 들으면 석물은 공간미를 위한 요소라는 생각이 듭니다. 석물의 예술적 가치가 높 다고 하셨는데 이에 대한 설명도 부탁드립니다.

학예사 : 왕릉에 배치된 석물은 능침을 수호하는 상징적 의미를 가지면서도, 고유한 예술미를 바탕으로 왕릉 의 장엄함을 강조하는 격조 높은 조각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석인상은 사각 기둥의 느낌이 나도록 형태가 단순화되어 있으면서도 수호신상과 같은 엄숙함을 느끼게 하는 예술미를 드러냅니다.

학생 : 덕분에 많은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 서 감사합니다.

학예사 : 네, 저도 즐거웠습니다. 조선 왕릉이 세계 유산으로 등재된 것은 기록 문화와 제례 의식과 관련된 기준도 있 으니 더 살펴봐도 좋겠네요.

학생 : 네, 잘 찾아볼게요. 감사합니다.

[B]

(나)

조선 왕릉은 자연 친화적 장묘 전통, 인류 역사의 중요한 단계를 잘 보여 주는 왕릉 조성과 기록 문화, 조상 숭배의 전 통이 이어지고 있는 살아 있는 유산이라는 점에서 가치를 인정받아, 2009년 유네스코 세계 유산으로 등재되었다.

조선은 자연과의 조화 속에서 왕릉을 조성하는 자연 친화적 원칙을 지켜 왔다. 이를 바탕으로, 조선 왕릉은 공간의 위계 를 만들어 능침 공간의 권위와 성스러움을 확보하는 공간 구 성의 독창성을 드러낸다. 조선 왕릉은 지면의 높이 차이를 만 들고 정자각의 배치를 활용하여 제향 공간과 능침 공간의 조 망 범위를 다르게 함으로써 공간의 위계를 조성하였다.

능침 공간은 왕의 공간인 상계, 신하의 공간인 중계와 하계로 영역이 나뉘어 영역별로 다양한 석물이 배치되었 다. 상계의 봉분에는 불교적 장식 요소를 새겨 넣은 병풍 석과 난간석을 두르고, 봉분 주변에는 영혼이 노니는 석상 인 혼유석, 악귀로부터 능을 수호하는 양 석상과 호랑이 석상 등을 두었다. 중계에는 어두운 사후 세계를 밝히는 장명등, 문신 형상의 석인상, 석마 등을, 하계에는 무신 형 상의 석인상, 석마 등을 두었다. 이들은 조선의 내세관과 함께, 문치주의를 표방했던 조선 왕조의 지향을 드러낸다.

조선 왕릉이 잘 보존되고 살아 있는 유산으로 평가 받는 이 유는 조선의 기록 문화와 제례 의식 덕분이라고 할 수 있다. 장례 과정을 담은 『국장도감의궤』, 왕릉의 조성 과정을 담은 『산릉도감의궤』 등의 기록물들은 왕릉을 유지하고 보수할 수 있게 하는 자료가 되고 있다. 또한 지금까지도 종묘에서 정례 적으로 봉행되는 제례 의식은 조상을 기억하고 존경하는 전통 이 살아 있음을 보여 준다.

[C]

4. (가)의 '학생'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알고 싶은 내용을 서두에 밝히며 인터뷰를 시작하고 있다.
 - ②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학예사에게 질문하고 있다.
 - ③ 학예사의 설명에 대한 자신의 이해가 적절한지 확인하고 있다.
 - ④ 학예사가 설명한 내용에 대해 자신의 경험을 밝히며 공감을 드러내고 있다.
 - ⑤ 학예사의 설명을 바탕으로 자신의 생각을 수정하며 질문을 덧붙이고 있다.

5. [A], [B]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① [A], [B] 모두에서 학생은 학예사의 이전 답변을 인용하며 추가적인 설명을 요청하고 있다.
- ② [A], [B] 모두에서 학생은 학예사가 제시한 사례의 적절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새로운 사례를 요청하고 있다.
- ③ 학예사는 학생의 요청에 따라 [A]에서 자신이 설명한 내용을 [B]에서 보충하고 있다.
- ④ 학예사는 학생의 이해를 돕기 위해 [A]에서 자신이 설명한 내용을 [B]에서 반복하고 있다.
- ⑤ 학예사는 [A]의 설명에 대한 학생의 잘못된 이해를 [B]에서의 설명을 통해 바로잡고 있다.

6. <보기>는 (나)를 작성하기 위해 세운 글쓰기 계획이다. <보기>에서 (나)에 반영된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 보 기 >

ㄱ. 조선 왕릉이 유네스코 세계 유산으로 등재되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조선 왕릉이 어떤 점에서 가치를 인정받았는지를 글의 첫머리에 밝히며 시작해야겠어.

ㄴ. 조선 왕릉의 자연 친화적 장묘 전통이 인정받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조선의 고유한 장묘 문화가 형성되는 데 우리나라의 자연 환경이 영향을 끼쳤음을 밝혀야겠어.

ㄷ. 조선 왕릉에 공간 구성의 독창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조선 왕릉에 나타나는 공간의 위계에 대해 설명해야겠어.

ㄹ. 조선 왕릉과 관련한 기록 문화와 제례 의식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왕릉과 관련된 기록물과 현재 유지되고 있는 제례 의식의 사례를 찾아 제시해야겠어.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7. [C]에 나타난 글쓰기 방식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능침 공간에 배치된 석물의 예술미를 분석하고 왕릉들을 비교하며 설명하고 있다.
- ② 능침 공간의 특정 석물에 대한 평가들을 소개하고 평가 간의 차이를 부각하고 있다.
- ③ 능침 공간에 배치된 석물의 형태 변화 양상을 설명하고 시기별 특징을 드러내고 있다.
- ④ 능침 공간에 배치된 석물에 대한 설명을 인용하고 이를 비판적 관점에서 검토하고 있다.
- ⑤ 능침 공간을 세 영역으로 구분하고 각 영역에 배치된 석물에 대해 설명을 덧붙이고 있다.

[8 ~ 10]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작문 상황]
여정, 견문, 감상이 담긴 문학 기행문을 작성한다.

- [작문 계획]**
- a. 군산을 답사지로 택한 이유를 밝힌다.
 - b. 군산에 도착하기까지의 여정을 제시한다.
 - c. 군산 거리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묘사한다.
 - d. 군산의 채만식 문학관에서 들은 내용을 제시한다.
 - e. 군산항에서 금강을 바라보며 느낀 감상을 드러낸다.

[초고]
이번 우리 문예반의 문학 기행 장소로 군산이 결정되었다. 국어 시간에 배운 채만식 소설 『탁류』의 배경이 된 군산 답사를 통해 그의 삶과 문학에 한 발자국 다가서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문학 기행을 떠나기 전, 우리는 『탁류』를 다시 읽으며 답사 일정을 정했다.

3월의 어느 날, 우리는 ㉠ 설레이는 마음으로 익산행 기차를 탔다. 그런데 도착할 즈음 야속하게도 차창 밖으로 비가 후드득 내리기 시작했다. 익산역에 내려 버스로 갈아탈 때는 비를 맞지 않기 위해 서둘러 발걸음을 재촉해야 했다. 다행히 군산에 도착하니 비는 멎어 있었다. 터미널에서 채만식 문학관으로 향하는 거리의 풍경은 낯설었다. 바둑판 모양으로 정리된 길과 일본식 가옥의 모습은 마치 외국에 온 듯한 느낌을 주었다. 낮은 담장을 배경으로 붉은 동백꽃이 꽃망울을 터트리고 있었다.

채만식 문학관은 군산 내항 근처 금강이 바로 내려다보이는 곳에 위치해 있었다. 문학관을 들어서자 중절모를 쓴 채만식 작가의 동상이 우리를 반겨 주었다. 파노라마식으로 펼쳐진 1층 전시실에서 작가의 삶의 흔적을 따라가며 작품과 관련된 자료들을 둘러보았다. ㉡ 그런데 2층의 한쪽에 마련된 체험 공간에서 『탁류』의 내용을 원고지에 필사도 해 보았다. 우리는 다시 차를 타고 금강을 따라 10분쯤 이동하여 군산 내항에 도착했다. 일제 강점기 때 일본은 이곳을 통해 호남 지역의 쌀을 일본으로 수탈해 갔다고 한다. ㉢ 역사에 수탈 현장에서 도도히 흐르는 물결을 바라보며 무거운 마음을 추슬렀다.

우리는 군산 내항 앞 근대 역사 박물관에 들렀다. 3층에는 일제 강점기 군산의 모습을 ㉣ 다시 체험한 근대 생활관이 있었다. 특히 『탁류』에서 읽은 미두장의 모습을 직접 볼 수 있어 인상적이었다.

근대 역사 박물관을 나와 군산항으로 발길을 돌렸다. 금강이 바다와 만나 혼탁해진 물빛을 바라보며 『탁류』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삶을 떠올렸다. 흐린 강물처럼 혼란스러웠을 일제 강점기, 그리고 쌀 수탈의 통로였던 군산, 그곳의 미두장에서 투기를 하다 패가망신한 정 주사와 당대 사람들의 삶의 질곡이 피부로 ㉤ 느껴졌다.

군산항을 떠날 때쯤 다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서둘러 떠나려는데 길가에 소담하게 핀 민들레가 눈에 띄었다. 언젠가 책에서 읽었던 채만식의 마지막 말이 떠올랐다.

‘나 가거든 손수레에 들꽃 가득가득 날 띄어 주오.’
애달픈 역사를 품은 아름다운 군산,
다시 가고 싶은…….

8. '학생'의 작문 계획 중 '초고'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 ① a ② b ③ c ④ d ⑤ e

9. <보기>의 (가)와 (나)를 모두 활용하여 '초고'를 수정·보완하는 방안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보 기 >

(가) 시각 자료

일제 강점기 쌀 수탈량

지역	비율
군산	40.2%
부산	33.5%
인천	14.7%
진남포	10.9%
목포	0.7%

- ○○ 방송 자료 -

(나) 인터뷰 자료

“군산은 채만식의 소설, 『탁류』의 배경이 된 곳입니다. 일제 강점기 때 군산 지역은 우리나라 최대의 곡창 지대인 호남평야의 쌀이 집결되는 경제 요충지로, 일본으로 쌀이 반출되는 창구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확천금을 노린 사람들이 전국에서 모여들어 투기와 사기, 고리대금업 등이 횡행했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주로 쌀의 시세를 이용하여 투기 행위를 하는 미두장을 중심으로 벌어졌습니다. 그 결과 가진 돈을 모두 잃고 알가지 신세로 전락하여 결국 인간성마저 잃어 가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 문화 해설사 이△△ -

- ① 1문단에서 『탁류』의 줄거리에 따라 군산 답사 일정을 정하게 된 계기를 소개하는 자료로 활용한다.
- ② 2문단에서 『탁류』의 배경인 군산의 이국적인 모습과 관련해 일본식 주거 문화를 소개하는 자료로 활용한다.
- ③ 3문단에서 『탁류』의 내용을 바탕으로 일본의 쌀 수탈량이 점점 증가하는 양상을 보여 주는 자료로 활용한다.
- ④ 4문단에서 『탁류』에서 정 주사가 몰락하게 된 결정적 원인이었던 미두장의 전국적 분포 및 그로 인한 폐해를 소개하는 자료로 활용한다.
- ⑤ 5문단에서 『탁류』의 배경인 군산이 일제의 식량 수탈로 혼란한 상황에서 타락한 인간들이 모인 공간으로 그려질 수 있었던 개연성을 언급하는 자료로 활용한다.

10. ㉠ ~ ㉣에 대한 고쳐 쓰기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맞춤법에 맞지 않으므로 '설레는'으로 고친다.
- ② ㉡: 접속 표현이 잘못 사용되었으므로 '그래서'로 고친다.
- ③ ㉢: 조사가 잘못 사용되었으므로 '역사의'로 고친다.
- ④ ㉣: 의미가 중복되므로 '다시'를 삭제한다.
- ⑤ ㉤: 문장 성분의 호응을 고려해 '느껴졌다'로 고친다.

11. <보기>는 수업의 일부이다. 선생님의 설명을 참고할 때 ㉠에 해당하는 것은?

< 보 기 >

선생님: 훈민정음의 초성 중 기본자는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뜨는 '상형'의 원리로 만들어졌어요. 'ㄱ'은 혀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을, 'ㄴ'은 혀가 윗잇몸에 닿는 모양을, 'ㅇ'은 입 모양을, 'ㅇ'은 이[齒] 모양을, 'ㅇ'은 목구멍 모양을 본뜨는 것이예요. 기본자에 소리의 세기에 따라 획을 더하는 '가획'의 원리를 적용하여 가획자 'ㅋ, ㆁ, ㆆ, ㆏, ㆐, ㆑, ㆒, ㆓'을 만들었고, 상형이나 가획의 원리를 적용하지 않고 별도로 이체자 'ㅇ, ㆁ, ㆏'을 만들었지요. 중성은 하늘, 땅, 사람의 모양을 본떠서 기본자 'ㅇ, ㆁ, ㆏'을 만들고, '합성'의 원리를 적용하여 초출자 'ㅇ, ㆁ, ㆏'과 재출자 'ㅇ, ㆁ, ㆏'을 만들었어요. 중성은 초성의 글자를 다시 사용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과 함께 카드놀이를 하며 훈민정음에 대하여 공부해 봅시다. ㉠아래의 카드 중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글자 카드를 찾아볼까요?

[조건]

- 초성: 이[齒] 모양을 본뜨 기본자에 가획하여 만든 글자
- 중성: 초출자 'ㅇ'에 기본자 'ㅇ'를 결합하여 만든 글자
- 중성: 상형이나 가획의 원리를 적용하지 않고 별도로 만든 글자

- ① 별
- ② 졸
- ③ 심
- ④ 창
- ⑤ 동

[12 ~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대화 1>

<자료>

관형어는 문장을 구성하는 성분 중 하나로, 품사 가운데 명사나 대명사와 같은 체언 앞에서 그 뜻을 꾸며 주는 기능을 한다. 예를 들어 '모든 책의' '모든'은 뒤에 오는 명사 '책'에 '빠짐이나 남김이 없이 전부의.'라는 의미를 더해 주는 관형어이다. 다음 문장들의 밑줄 친 부분은 모두 관형어이다.

- ㄱ. 선생님의 목소리가 들린다.
- ㄴ. 마실 물이 있다.
- ㄷ. 맑은 물이 있다.
- ㄹ. 온갖 꽃이 활짝 피어 있다.

ㄱ은 체언에 관형격 조사 '의'가 결합하여 관형어가 된 경우이다. '선생님의'는 명사 '선생님'에 관형격 조사 '의'가 결합하여 '목소리'를 꾸며 주고 있다. 이 경우 '선생님 목소리'와 같이 관형격 조사 없이 명사만으로도 관형어가 될 수 있다. 하지만 관형격 조사 '의'를 반드시 써야 하는 경우가 있고, '의'가 생략되면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도 있다.

ㄴ은 동사나 형용사와 같은 용언의 어간에 관형사형 어미 '-(으)ㄴ', '-(으)ㄹ' 등이 결합하여 관형어가 된 경우이다. '마실'은 동사의 어간 '마시-'에 관형사형 어미 '-ㄴ'이 결합하여 '물'을 꾸며 주고 있고, '맑은'은 형용사의 어간 '맑-'에 관형사형 어미 '-은'이 결합하여 '물'을 꾸며 주고 있다.

ㄷ은 관형사가 관형어가 된 경우이다. 관형사는 체언 앞에서 체언의 뜻을 꾸며 주는 품사이다. 관형사 '온갖'은 명사 '꽃'을 꾸며 주며 '이런저런 여러 가지의.'라는 의미를 더해 주고 있다. 관형사는 체언과 달리 조사와 결합할 수 없으며, 용언과 달리 활용이 불가능하다는 특성이 있다.

<대화 2>



12. [A], [B]에 들어갈 말을 바르게 짝지은 것은?

- | | |
|----------------|--------------|
| [A] | [B] |
| ① 품사가 무엇인가 | 의미가 무엇인가 |
| ② 품사가 무엇인가 | 문장 성분이 무엇인가 |
| ③ 문장 성분이 무엇인가 | 문장의 종류가 무엇인가 |
| ④ 문장의 종류가 무엇인가 | 의미가 무엇인가 |
| ⑤ 문장의 종류가 무엇인가 | 문장 성분이 무엇인가 |

13. 밑글을 참고하여 <보기>를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a. 고향	+	친구가 여기 있다.
b. 예쁜		
c. 남자의		
d. 옛		

- ① a~d는 모두 체언 '친구'를 꾸며 주는 역할을 한다.
- ② a는 조사가 없이 체언만으로 관형어가 된 경우이다.
- ③ b는 용언의 어간 '예쁘-'에 관형사형 어미 '-ㄴ'이 결합된 것이다.
- ④ c에서 관형격 조사 '의'가 생략되어도 문장의 원래 의미가 달라지지 않는다.
- ⑤ d는 조사가 결합할 수 없으며 활용이 불가능하다.

14. ㉠~㉢ 중 <보기>의 ㉠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3점]

< 보 기 >

높임 표현에는 말하는 이가 듣는 이에 대하여 높이거나 낮추어 말하는 상대 높임, 서술의 주체를 높이는 주체 높임, 목적어나 부사어가 나타내는 대상, 즉 서술의 객체를 높이는 ㉠ 객체 높임이 있다.

선생님: 지은아, 방학은 잘 보냈니?
 지은: 네. 제 용돈으로 할머니께 ㉠ 드릴 선물을 사서 할머니 댁에 다녀왔어요.
 선생님: 기특하다. 할머니를 ㉡ 뵈고 왔구나. 가서 무엇을 했니?
 지은: 아버지께서 할머니를 ㉢ 모시고 병원에 가신 사이에 저는 ㉣ 큰아버지께 인사를 드리고 왔어요.
 선생님: 저런, 할머니께서 ㉤ 편찮으셨나 보다.

-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15. <보기>의 (가), (나)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 보 기 >

단어는 문맥에 따라 여러 가지 뜻을 가진다. 그래서 반의어도 여럿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시계가 서다.'에서 '서다'의 반의어는 '가다'인데, '기강이 서다.'에서 '서다'의 반의어는 '무너지다'가 된다. '벗다'도 문맥에 따라 여러 가지 뜻을 가지기 때문에 반의어가 여럿이다.

단어	예문	반의어
벗다	외투를 벗다.	입다
	(가)	쓰다
	배낭을 벗다.	(나)

- | | |
|-----------|-----|
| (가) | (나) |
| ① 누명을 벗다. | 메다 |
| ② 안경을 벗다. | 끼다 |
| ③ 장갑을 벗다. | 차다 |
| ④ 모자를 벗다. | 걸다 |
| ⑤ 허물을 벗다. | 들다 |

[16 ~ 2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심리학자인 카너먼은 인간이 논리적 사고 과정을 통해 합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직감에 의해 문제를 해결하는 경향이 강하다고 주장하였다. 예컨대 “영어 단어 중 R로 시작하는 단어와 R이 세 번째에 있는 단어 중 어느 것이 더 많은가?”라는 질문에, 실제로는 후자의 단어가 더 많지만 전자의 단어가 더 쉽게 떠오르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R로 시작하는 단어가 더 많다고 대답한다. 그는 이를 ㉠ 해당 사례를 자주 접하거나 쉽게 떠올릴 수 있으면, 발생 빈도수가 높다고 판단하는 인간의 심리적 특성에 기인한다고 보았다. 그는 실제 인간의 행동에 나타나는 다양한 양상을 연구하여 인간은 합리적 선택을 한다는 전통 경제학의 전제에 반기를 들고, 심리학적 연구 성과를 경제학에 접목시킨 새로운 이론을 제안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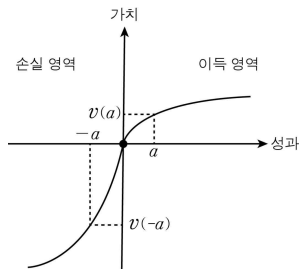
전통 경제학에서는 인간을 합리적 선택을 하는 존재로 가정하고, 시장에서의 재화와 용역의 생산, 분배, 소비 활동을 연구한다. 전통 경제학의 대표적 이론인 기대 효용 이론에 따르면, 인간은 대안이 여러 개일 때 각 대안의 효용을 계산하여 자신에게 최대 이득을 주는 대안을 선택한다. 이때 ‘효용’이란 재화를 소비할 때 느끼는 만족감이다. 어떤 대안의 기대값인 기대 효용은, 대안을 선택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개별 사건의 효용에, 각 사건의 발생 확률을 곱해 모두 더한 값이다.

예컨대 동전을 던져 앞면이 나오면 20,000원을 얻고 뒷면이 나오면 10,000원을 잃는 게임 A, 앞면이 나오면 10,000원을 얻고 뒷면이 나오면 5,000원을 잃는 게임 B가 있다고 해보자. 화폐 효용은 그것의 역면가와 같다고 할 때, 동전의 앞면, 뒷면이 나올 확률은 각각 0.5이므로, 게임 A의 기대 효용은 $(20,000원 \times 0.5) - (10,000원 \times 0.5) = 5,000원$, 게임 B의 기대 효용은 $(10,000원 \times 0.5) - (5,000원 \times 0.5) = 2,500원$ 이다. 기대 효용 이론에 따라 합리적 판단을 한다면 기대 효용이 더 큰 게임 A를 선택해야 하지만, 실제 선택 상황에서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게임 B를 선택한다.

카너먼은 이러한 선택의 문제를 설명하기 위해 전망 이론을 제시하였다. ㉡ 전망 이론은 이득보다 손실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는 인간의 심리가 선택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는 이론이다. 여기서 ‘전망’은 이득과 손실에 대해 사람들이 느끼는 심리 상태를 의미한다. 전망은 대안을 선택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개별 성과의 가치에, 각각의 결정 ‘가중치’를 곱해 모두 더한 값이다.

<그림>은 전망 이론에서 이득과 손실에 대한 인간의 반응을 설명하는 그래프다. 여기서 x 축은 성과를, y 축은 성과에 대해 사람들이 부여하는 가치(v)를 나타낸다. 그리고 두 축이 교차하는 지점은 현재 ‘나의 상황을 의미하는 준거점으로, 이를 기준으로 오른쪽은 이득 영역이고, 왼쪽은 손실 영역이다. 이 그래프에서 이득 영역의 $v(a)$ 와 손실 영역의 $v(-a)$ 의 절댓값을 비교하면 후자의 값이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같은 크기의 이득과 손실이 있을 때 이득감보다 손실감이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그래프에 따라 앞서 예를 든 게임 A와 B 중에서 사람들



<그림>

이 후자를 더 많이 선택하는 이유를 분석하면, 20,000원을 얻었을 때의 이득감이 10,000원을 얻었을 때의 이득감보다 크지만, 10,000원을 잃었을 때의 손실감이 5,000원을 잃었을 때의 손실감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에, 더 큰 손실감을 피하고자 하는 심리가 반영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전망 이론에서는 이러한 심리가 실제 선택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현상을 ㉢ ‘틀 효과’로 설명한다. 이에 따르면 사람들은 여러 대안 중 하나를 선택할 때, 선택 상황이 자신에게 이득을 주는지, 손실을 주는지에 따라 전자를 ‘긍정적 틀’로, 후자를 ‘부정적 틀’로 인식한다. 그 결과 사람들은 긍정적 틀에서는 확실한 이득을 주는 대안을 선택하고, 부정적 틀에서는 불확실한 손실을 주는 대안을 선택한다. 불확실성을 ‘위험’이라 할 때, 불확실성을 피해 확실성을 추구하는 것은 ‘위험 회피 성향’에, 불확실성을 추구하는 것은 ‘위험 추구 성향’에 해당하므로, 사람들은 긍정적 틀에서는 위험 회피 성향을, 부정적 틀에서는 위험 추구 성향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다음의 선택 상황에서 이와 같은 틀 효과를 확인할 수 있다.

- [상황 1] 100만 원이 있으며, ㉣안과 ㉤안 중 택 1
- ㉣안: 0.5의 확률로 100만 원을 받거나, 아무것도 받지 못한다.
 - ㉤안: 1의 확률로 50만 원을 받는다.

- [상황 2] 100만 원이 있으며, ㉥안과 ㉦안 중 택 1
- ㉥안: 0.5의 확률로 100만 원을 잃거나, 아무것도 잃지 않는다.
 - ㉦안: 1의 확률로 50만 원을 잃는다.

‘상황 1’은 이득을 주는 상황으로, 사람들은 이를 긍정적 틀로 인식하므로 많은 사람들이 이득이 불확실한 ㉣안보다 이득이 확실한 ㉤안을 선택한다. 반대로 ‘상황 2’는 손실을 주는 상황으로, 사람들은 이를 부정적 틀로 인식하므로 많은 사람들이 손실이 확실한 ㉦안보다 손실이 불확실한 ㉥안을 선택한다.

전통 경제학은 인간이 합리적 선택을 한다는 전제로 이상적인 경제 상황을 설명했다면, 카너먼은 이러한 전제를 비판하며 실제 인간의 삶에서 나타나는 선택 행동의 특성을 심리학에 근거해 설명했다. 그 결과 인간의 선택 과정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에 주목해 행동 경제학이라는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였다.

* 결정 가중치: 어떤 성과에 대해 사람들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발생 확률.

16. 밑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기대 효용 이론은 자신의 현재 상황을 준거로 하여 나타나는 선택 행동의 다양한 양상을 분석하였다.
- ② 기대 효용 이론에 따르면 인간은 여러 대안이 있을 때 자신에게 가장 큰 이득을 주는 대안을 선택한다.
- ③ 카너먼은 인간이 논리적 사고 과정보다는 직감에 의존해 문제를 해결하는 경향이 강하다고 주장하였다.
- ④ 카너먼은 심리학적 연구 성과를 경제학에 접목시켜 전통 경제학과 구별되는 새로운 이론을 구축하였다.
- ⑤ 카너먼은 인간이 합리적인 선택을 한다는 전통 경제학의 전제를 실제 인간의 행동을 근거로 반박하였다.

17. ㉠에 해당하는 사례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질문) 신은 존재하는가?
(대답) 그렇다. 왜냐하면 신이 없음을 증명한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 ② (질문) '1부터 10까지의 합'과 '11부터 15까지의 합' 중 더 큰 것은?
(대답) 전자이다. 왜냐하면 전자가 후자보다 많은 숫자를 더하기 때문이다.
- ③ (질문)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률'과 '당뇨로 인한 사망률' 중 사망률이 더 높은 것은?
(대답) 전자이다. 왜냐하면 전자를 후자보다 매체를 통해 자주 보기 때문이다.
- ④ (질문) '지방이 10% 함유된 우유'와 '지방이 90% 제거된 우유' 중 선택하고 싶은 것은?
(대답) 후자이다. 왜냐하면 후자가 전자보다 지방이 적게 함유된 식품으로 느껴지기 때문이다.
- ⑤ (질문) '한 명이 빵 한 개를 만드는 것'과 '열 명이 빵 열 개를 만드는 것' 중 시간이 더 오래 걸리는 것은?
(대답) 후자이다. 후자가 전자보다 힘이 더 많이 드는 일로 느껴지기 때문이다.

18. <보기>는 윗글의 <그림>에 대한 설명이다. A, B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짝지은 것은?

< 보기 >

이득 영역에서는 성과가 동일한 크기로 증가할 때마다 성과에 대하여 부여하는 가치의 크기가 (A)하는 폭이 (B).

	A	B
①	증가	작아진다
②	증가	커진다
③	증가	같아진다
④	감소	작아진다
⑤	감소	커진다

19. '카너먼'의 입장에서 윗글의 '상황 1'과 '상황 2'에 대해 설명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안의 50만 원과 ㉡안의 50만 원에 대해 사람들이 부여하는 가치는 다르다.
- ② ㉠안을 선택하는 사람들은 위험 회피 성향이고, ㉡안을 선택하는 사람들은 위험 추구 성향이다.
- ③ ㉠, ㉡안은 이득이나 손실이 불확실한 대안, ㉢, ㉣안은 이득이나 손실이 확실한 대안에 해당한다.
- ④ '상황 1'에서 ㉢안을 선택하는 사람이 많은 것은 사람들이 불확실한 이득보다 확실한 이득을 선호하기 때문이다.
- ⑤ '상황 2'에서 ㉣안을 선택하는 사람이 많은 것은 확실한 손실을 꺼리는 인간의 심리가 반영된 결과이다.

20. ㉠을 바탕으로, <보기>의 밑줄 친 부분의 이유를 추론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기 >

“먼저 써 보시고 한 달 후에 제품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반품하십시오. 금액은 전액 환불해 드립니다.”라는 광고 문구에 많은 소비자들이 귀가 솔깃해져 쉽게 제품을 구매한다. 하지만 막상 한 달 후, 제품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사용하던 제품을 반품하고 구매한 금액을 환불받는 소비자는 소수에 지나지 않는다. 이는 이득과 손실에 대한 심리 반응의 차이를 이용한 효과적인 판매 전략이라 할 수 있다.

- ① 제품을 사용하는 기간만큼 제품을 통해 얻는 이득감이 줄어들기 때문에
- ② 제품에 대한 불만족은 심리적인 현상일 뿐, 제품 자체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 ③ 제품을 반품했을 때의 이득감이 제품을 그대로 사용했을 때의 이득감보다 더 크기 때문에
- ④ 제품을 반품할 때 느끼는 손실감이 구매한 금액을 환불받을 때 느끼는 이득감보다 크게 느껴지기 때문에
- ⑤ 제품을 구매하는 과정에 투입된 시간과 노력을 계산했을 때, 제품을 반품하는 것이 합리적 선택이기 때문

21. ㉠을 고려할 때, <보기>의 '상황'에 대한 사람들의 선택을 예측한 것으로 적절한 것은? [3점]

< 보기 >

[상황]
 ○○ 지역에 전염병이 돌아 600명의 주민이 죽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전염병을 막기 위한 프로그램 ㉡와 ㉣이 있다.
 ○ 프로그램 ㉡: 400명의 사람이 죽게 됨.
 ○ 프로그램 ㉣: 아무도 죽지 않을 확률이 3분의 1이고, 600명이 죽게 될 확률이 3분의 2임.

[질문]
 만약 여러분이 정책 담당자라면 프로그램 ㉡와 ㉣ 중 어느 것을 선택하겠는가?

- ① 사람들은 상황을 부정적 틀로 인식하기 때문에 프로그램 ㉡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더 많을 것이다.
- ② 사람들은 상황을 부정적 틀로 인식하기 때문에 프로그램 ㉣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더 많을 것이다.
- ③ 사람들은 상황을 긍정적 틀로 인식하기 때문에 프로그램 ㉡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더 많을 것이다.
- ④ 사람들은 상황을 긍정적 틀로 인식하기 때문에 프로그램 ㉣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더 많을 것이다.
- ⑤ 사람들은 상황을 긍정적 틀로 인식하기 때문에 프로그램 ㉡와 ㉣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비슷할 것이다.

[22 ~ 26]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공익을 위한 적법한 행정 작용으로 개인의 재산권*에 특별한 희생이 발생한 경우, 개인은 자신이 입은 재산상 손실을 보상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인 '손실 보상 청구권'을 갖는다. 여기서 '특별한 희생'이란 보호할 필요가 있는 재산권에 대한 침해로 이르는 말로, 이로 인한 손실은 국가가 보상해야 한다. 가령 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행정 기관이 감염병 예방을 위해 의료기관의 병상이나 연수원, 숙박 시설 등을 동원한 경우 이로 인한 손실을 개인에게 보상하여야 하는데, 이때의 재산권 침해가 특별한 희생에 해당하는 것이다.

손실 보상 청구권은 ㉔공적 부담의 평등을 위해 인정되는 헌법상 권리이다. 행정 작용으로 누군가에게 특별한 희생이 발생하면, 그로 인한 부담을 공공이 분담하는 것이 평등 원칙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또한 헌법 제23조 제3항은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하여,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즉 공용 침해와 이에 대한 보상이 법률에 규정되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공용 침해 중 수용이란 개인의 재산권을 국가로 이전하는 것, 사용이란 행정 기관이 개인의 재산권을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것, 제한이란 개인의 재산권 사용 또는 그로 인한 수익을 한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제23조 제3항은 내용상 분리될 수 없는 사항은 함께 규정되어야 한다는 의미의 '불가분 조항'이다. 따라서 ㉓공용 침해 규정과 보상 규정은 하나의 법률에서 규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헌법은 제23조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라고 규정하여, 재산권은 법률에 의해 구체화된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제2항에서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하여, 개인의 재산권 행사가 공익에 적합하여야 한다는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토지처럼 공공성이 강한 사유 재산은 재산권 행사에 더욱 강한 사회적 제약을 받을 수 있다. 만약 재산권 침해가 ㉑사회적 제약의 범위 내에 있다면 이로 인한 손실은 보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즉 재산권 침해가 특별한 희생에 해당할 때만 보상이 가능한 것이다.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과 특별한 희생의 구별에 대해 ㉑경계 이론과 ㉒분리 이론은 서로 다른 입장을 취한다. 경계 이론에 따르면 ㉓양자는 별개가 아니라 단지 침해의 정도에 있어서만 차이가 있을 뿐이다. 재산권 침해는 그 정도가 사회적 제약의 범위를 넘어서면 특별한 희생으로 바뀐다는 것이다. 따라서 경계 이론은 사회적 제약을 벗어나는 재산권 침해는 보상 규정이 없어도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보상을 규정하지 않은 채 공용 침해를 규정하고 있는 법률은, 불가분 조항인 헌법 제23조 제3항에 위반되어 위헌이고, 위헌임이 밝혀진 법률에 근거한 공용 침해 행위는 위법한 행정 작용이 된다는 것이다. 경계 이론은 적법한 공용 침해 행위의 경우에 보상이 인정된다면, 위법한 공용 침해 행위의 경우에도 헌법 제23조 제3항을 근거로 보상을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반해 분리 이론은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에 대한 헌법 제23조 제2항의 규정과 특별한 희생에 대한 제3항의 규정은 ㉑입법자의 의사에 따라 완전히 분리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재산권 침해를 규정한 법률에 보상 규정이 없는 경우 입법자가 이러한 재산권 침해를 특별한 희생이 아닌 사회적 제약으

로 규정한 것으로 본다. 재산권 침해가 사회적 제약 또는 특별한 희생 중 무엇에 해당하는지 결정하는 것은 법률을 제정하는 입법자의 권한이라는 것이다. 만약 해당 법률에 규정된 재산권 침해가 헌법 제23조 제2항에서 규정한 재산권의 공익 적합성을 넘어서서 개인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면, 이러한 법률은 헌법 제23조 제2항을 위반하여 위헌이고, 위헌임이 밝혀진 법률에 근거한 행정 작용은 위법하게 된다. 분리 이론은 이러한 경우 ㉒손실을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위법한 행정 작용 자체를 제거해야 한다고 본다. 재산권을 존속시키는 것이 재산권을 침해하면서 그 손실을 보상하는 것보다 우선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 재산권: 재산의 소유권, 사용·수익권, 처분권 등 일체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

22. 밑줄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㉑ 헌법이 개인에게 보장하는 재산권의 내용은 법률로써 그 내용이 구체화된 것이다.
- ㉒ 공용 침해 중 '사용'과 달리 '제한'의 경우, 행정 작용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재산권은 국가로 이전되지 않는다.
- ㉓ 재산권을 침해하는 모든 행정 작용에 대해, 개인은 자신이 입은 손실을 보상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 ㉔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을 규정하는 모든 법률은 공용 침해와 손실 보상이 내용상 분리될 수 없다는 원칙에 어긋난다.
- ㉕ 감염병 예방을 위해 행정 기관이 사실 연수원을 일정한 기간 동원하는 것은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에 해당한다.

23. ㉑과 ㉒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㉑ ㉑은 법률에 보상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헌법 제23조 제3항을 근거로 하여, 행정 작용으로 인한 재산상 손실을 보상할 수 있다고 본다.
- ㉒ ㉒은 헌법 제23조 제2항과 제3항의 규정은 전혀 다른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고 본다.
- ㉓ ㉑은 행정 작용으로 인한 재산상 손실을 항상 보상해야 한다고 보는 반면, ㉒은 보상하지 않을 수 있다고 본다.
- ㉔ ㉑은 재산권 침해의 정도를, ㉒은 입법자의 의사를 기준으로 손실 보상 청구권의 성립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본다.
- ㉕ ㉑과 ㉒은 모두 보상 규정 없이 사회적 제약의 범위를 벗어나는 재산권 침해를 규정한 법률은 위헌이라고 본다.

24. ㉒의 전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 ㉑ 재산권은 입법자의 의사에 따라 보상 없이 제한해야 하는 권리이다.
- ㉒ 공용 침해 규정과 손실 보상 규정이 동일한 법률에서 규정될 필요는 없다.
- ㉓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은 입법자의 의사에 따라 제한 없이 규정될 수 있다.
- ㉔ 행정 작용이 공익을 목적으로 한다면 이로 인한 손실은 보상할 필요가 없다.
- ㉕ 입법자가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한, 재산권은 그대로 보존되어야 하는 권리이다.

25. 윗글을 참고하여 <보기>의 '헌법 재판소'의 판단에 대해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 보 기 > —

A 법률에 따르면, 국가는 도시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개발 제한 구역을 지정할 수 있고, 개발 제한 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에서는 건축 등 토지 사용이 제한된다. 하지만 A 법률은 개발 제한 구역 지정으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는 규정은 포함하고 있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A 법률에 대한 헌법 소원이 제기되었다.

헌법 재판소는 분리 이론의 입장을 취하면서, 토지 재산권의 공공성을 고려하면 A 법률은 원칙적으로 합헌이라고 판단하였다. 하지만 개발 제한 구역으로 지정되어 토지를 사용할 방법이 전혀 없는 등 개인에게 가혹한 부담이 발생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사회적 제약을 벗어나서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예외적인 경우까지 고려하지 않은 A 법률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였다.

- ① 헌법 재판소는 개발 제한 구역을 지정하는 행위가 헌법 제 23조 제2항에 위반되는지를 판단하였겠군.
- ② 헌법 재판소는 개발 제한 구역을 지정하는 행위가 헌법 제 23조 제3항과는 관련이 없다고 판단하였겠군.
- ③ 헌법 재판소는 개발 제한 구역을 지정하는 행위가 헌법에 위반되었는지 여부를 토지의 공공성을 근거로 판단하였겠군.
- ④ 헌법 재판소는 개발 제한 구역 지정으로 인한 재산권 침해는 개인에게 가혹한 부담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고 판단하였겠군.
- ⑤ 헌법 재판소는 개발 제한 구역을 지정하는 행위가 개인에게 가혹한 부담을 초래한 경우, 이때의 재산권 침해는 특별한 희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겠군.

26. 문맥상 ㉠~㉣를 바꿔 쓴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행정 작용으로 인한 부담을 개인이 모두 떠안게 되는 불평등을 조정하기 위해
- ② ㉡: 공공필요에 의해 개인의 재산권을 수용·사용·제한하는 규정과
- ③ ㉢: 헌법 제23조 제2항에 규정된 재산권의 한계 안에
- ④ ㉣: 경계 이론의 입장과 분리 이론의 입장은 전혀 다른 것이 아니라
- ⑤ ㉤: 재산권 침해 정도에 따라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입법자의 서로 다른 의사가 반영된 것이라고

[27 ~ 3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미래주의는 20세기 초 이탈리아 시인 마리네티의 '미래주의 선언'을 시작으로, 화가 발라, 조각가 보치오니, 건축가 상텔리아, 음악가 루솔로 등이 참여한 전위예술* 운동이다. 당시 산업화에 뒤처진 이탈리아는 산업화에 대한 열망과 민족적 자존감을 ㉠ 고양시킬 수 있는 새로운 예술을 필요로 하였다. 이에 산업화의 특성인 속도와 운동에 주목하고 이를 예술적으로 표현하려는 미래주의가 등장하게 되었다.

특히 미래주의 화가들은 질주하는 자동차, 사람들로 북적이는 기차역, 광란의 댄스홀, 노동자들이 일하는 공장 등 활기찬 움직임을 보여 주는 모습을 주요 소재로 삼아 산업 사회의 역동적인 모습을 표현하였다. 그들은 대상의 움직임의 ㉡ 추이를 화폭에 담아냄으로써 대상을 생동감 있게 형상화하려 하였다. 이를 위해 미래주의 화가들은, 시간의 흐름에 따른 대상의 움직임을 하나의 화면에 표현하는 분할주의 기법을 사용하였다. '질주하고 있는 말의 다리는 4개가 아니라 20개다.'라는 미래주의 선언의 내용은, 분할주의 기법을 통해 대상의 역동성을 ㉢ 지향하고자 했던 미래주의 화가들의 생각을 잘 드러내고 있다.

분할주의 기법은 19세기 사진작가 머레이의 연속 사진 촬영 기법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이미지의 겹침, 역선(力線), 상호 침투를 통해 대상의 연속적인 움직임을 효과적으로 표현하였다. 먼저 이미지의 겹침은 화면에 하나의 대상을 여러 개의 이미지로 중첩시켜서 표현하는 방법이다. 마치 연속 사진처럼 화가는 움직이는 대상의 잔상을 바탕으로 시간의 흐름에 따른 대상의 움직임을 겹쳐서 나타내었다. 다음으로 힘의 선을 나타내는 역선은, 대상의 움직임의 궤적을 여러 개의 선으로 구현하는 방법이다. 미래주의 화가들은 사물이 각기 특징적인 움직임을 갖고 있다고 보고, 이를 역선을 통해 표현함으로써 사물에 대한 화가의 느낌을 드러내었다. 마지막으로 상호 침투는 대상과 대상이 겹쳐서 보이게 하는 방법이다. 역선을 사용하여 대상의 모습을 나타내면 대상이 다른 대상이나 배경과 구분이 모호해지는 상호 침투가 발생해 대상이 사실적인 형태보다는 ㉣ 왜곡된 형태로 표현된다. 이러한 방식으로 미래주의 화가들은 움직이는 대상의 속도와 운동을 효과적으로 나타낼 수 있었다.

기존의 전통적인 서양 회화가 대상의 고정적인 모습에 ㉤ 주목하여 비례, 통일, 조화 등을 아름다움의 요소로 보았다면, 미래주의 회화는 움직이는 대상의 속도와 운동이라는 미적 가치에 주목하여 새로운 미의식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이러한 미래주의 회화는 이후 모빌과 같이 나무나 금속으로 만들어 입체적 조형물의 운동을 보여 주는 키네틱 아트가 등장하는 데 ㉥ 영감을 제공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 전위예술: 기존의 표현 예술 형식을 부정하고 새로운 표현을 추구하는 예술 경향.

27. 윗글에서 언급된 내용이 아닌 것은?

- ① 미래주의에 참여한 예술가들
- ② 미래주의가 등장하게 된 배경
- ③ 미래주의 화가들이 사용한 기법
- ④ 미래주의 회화가 발전해 온 과정
- ⑤ 미래주의 화가들이 추구한 미의식

28. ㉠의 구체적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전통 회화 양식에서 벗어나 움직이는 대상이 주는 아름다움을 최초로 작품화하려는 생각
- ② 기존의 방식과 달리 미적 가치를 3차원에서 실제로 움직이는 대상을 통해 구현하려는 생각
- ③ 사진의 촬영 기법을 회화에 접목시켜 비례와 조화에서 오는 조형물의 예술성을 높이려는 생각
- ④ 산업 사회의 역동적인 모습에서 벗어나 인류가 추구해야 할 미래상을 화폭에 담아내려는 생각
- ⑤ 예술적 대상의 범위를 구체적인 대상에서 추상적인 대상으로 확대하여 작품을 창작하려는 생각

29.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움직이는 강아지의 모습을 속도감 있게 그린 것에서 미래주의 회화의 경향을 엿볼 수 있겠군.
- ② 선을 교차시켜 쇠사슬의 잔상을 구체적으로 재현한 것에서 역선을 통해 사실적인 형태를 강조했음을 알 수 있겠군.
- ③ 강아지의 발과 바닥의 경계가 모호하게 보이는 것에서 대상과 배경의 상호 침투 효과를 엿볼 수 있겠군.
- ④ 강아지의 발을 중첩시켜 표현한 것은 이미지 겹침을 통해 시간의 흐름에 따른 대상의 움직임을 나타낸 것이겠군.
- ⑤ 사람의 다리를 두 개가 아닌 여러 개로 그린 것은 분할주의 기법을 활용하여 걷는 이의 역동적 모습을 강조한 것이겠군.

30. ㉠~㉣의 사전적 의미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정신이나 기분 따위를 복돋워서 높임.
- ② ㉡: 시간의 경과에 따라 변하여 나감.
- ③ ㉢: 어떤 목표로 뜻이 쏠리어 향함.
- ④ ㉣: 사실과 다르게 해석하거나 그릇되게 함.
- ⑤ ㉤: 자신의 의견이나 주의를 굳게 내세움.

[31 ~ 3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우리 집안은 일찍부터 논이나 밭배기 한 두루도 가져 본 적 없었으므로, 아버지는 낫이나 호미 자루 한 번 잡아 보지 않았다. 그렇다고 일정한 직업을 가져 본 적도 없었다. 일 년을 따져 평균 아홉 달은 집을 떠나 어디론가 떠돌아 다녔고, 집에 붙어 있는 나머지 달은 낫시로 소일했다. 이태 전 봄까지 만도 우리는 읍내 거리 장마당 부근에 살았다. 그때 역시 엄마는 근동 장터를 떠돌며 어물 장사를 했고, 아버지는 읍내에서 사 킬로 정도 떨어진 지금 우리가 사는 주남 저수지에 낫시를 다니며, 늘 집 떠날 궁리만 하고 지냈다. 새마을 도호가 확장되는 통에 우리가 세 든 읍내 장터 집이 헐리게 되자, 아버지는 엄마를 졸라 주남 저수지 옆 민 씨 별채로 이사를 오게 되었다.

“주남 저수지는 우리나라에서 알아주는 철새 도래지 아인가. 내가 새를 무척 좋아하거덩.”

아버지가 말했다.

“㉠ 당신이사 땅으로 걸어댕기는 철새인게 날아댕기는 철새가 좋겠지예. 그런데 새 구경하는 거도 좋지만 그 구경댕기모 밥이 생기고 떡이 생기고요?”

엄마는 말도 되잖은 소리란 듯 한숨을 내쉬며 돌아왔고 말했다.

“그거 말고도, 관리인 민 씨 말이 타지에서 오는 낫시꾼들 뒷바라지나 해 주모 찬값 정도는 번다 안카나.....”

엄마는 그쪽으로 이사하면 당장 장사 다니는 길이 먼 줄을 알면서도, 어떻게 아버지가 집에 눌러 있을까 싶었던지 그 말에 선선히 동의했다. 그러나 주남 저수지 쪽으로 이사 와서 보름을 채 못 넘겨 아버지는 슬그머니 집을 떠나고 말했다. 부산과 마산의 낫시꾼들이 떡밥은 물론 술이며 안주 접시까지 심부름시키는 데 아버지는 더 참아 낼 수 없었던 것이다. 더러운 세상, 나쁜 놈들이라며 전에는 입에 담지 않던 욕설을 술김에 종종 뱉더니, 기어코 그 떠돌이 병에 발동이 걸렸다. 늘 궁핍한 일이지만, 아버지는 집을 떠나 떠돌 동안 숙식을 어떻게 해결하고 다니는지 알 수 없었다. 그로부터 두 달 뒤, 여름이 끝날 무렵에서야 아버지는 돌아왔다. 그 행려 끝에 무슨 결심을 굳혔는지 들배산 자락을 덮은 민 씨네 대나무 밭의 굵은 대 몇 그루를 썬와 방패연을 만들기 시작했다. 내가 어릴 때 아버지는 더러 방패연을 만들어 주기도 했지만, 근래에는 한 번도 없던 짓거리였다. 대나무를 가늘게 쪼개어 햇빛에 말려선, 장두칼로 다듬고, 한지에 바람 구멍을 뚫어, 거기에 다섯 개 댓개비를 붙여 방패연을 만드는 솜씨는 아버지가 지닌 유일한 기술 같아 보였다. 천장 가운데 태극무늬나 붉은 원을 오려 붙여 만든 연이 큰 놈은 두 번 접은 신문지만 했고 작은 놈은 교과서만 한 크기도 있었다.

“㉡ 겨울도 아인데 그 많은 연을 어데다 팔라 잡니꺼?”

내가 물었다.

“머 꼭 돈이 목적이라서 땡그나. 쓸모없어도 땡고 싶으이께 땡들제. 참새가 날라 카모 기리기만큼 와 하늘 높이 몬 날겠노. 먼 데겨정 갈 필요가 없으이께 지 오를 만큼 오르고 말지러.”

아버지가 쓸데없이 비유까지 곁들여 말했다.

“옛것에 연 땡글어 줬다는 돌아가신 할아버지 생각이 나서 땡글어예?”

“사람은 어데 갈 목적이 없어도 어떤 때는 연땡크로 그냥 밀리로 떠나 땡기고 싶은 꿈이 있는 기라. ㉢그런 꿈 없이 일반 하는 사람은 꼭 개미 같아. 사람은 개미가 아이잖나.

돈 벌라고 밤낮으로 일만 하는 사람을 보모 사람 사는 목적이 저런가 싶을 때가 있지러. 그 사람들이 보모 **내 같은 사람이 쓸모없이 보일란지 몰라도.....**”

아버지가 어실픈 미소를 띠어 보였다.
“목고살기 바쁘도 그래 산천 구경하고 싶어도 문 떠나는 거 아입니까.”

하며, 나는 엄마를 생각했다.
“그렇기사 하겠제. 그라고 보모 나는 아메 떠돌아댕기는 팔자를 타고났나 보제.”
아버지가 시무룩이 말했다.

[중략 부분 줄거리] 나와 아버지는 낚시꾼들에게 방패연을 팔러 가지만 연은 거의 팔리지 않는다. 그 무렵 아버지는 훌쩍 또 집을 떠나고, 장마가 시작된 여름밤에 다시 돌아온다. 나는 장사 자신 어머니를 마중 나가기 위해 자전거를 끌고 장터로 간다.

너성이 다시 한차례 하늘 북판에서 쫓겨왔다. 엄마는 흠뻑 어깨를 떨었고, 나는 몸이 오그라드는 듯한 놀람으로 무심결에 자전거 핸들을 눌러 잡았다.

“짜대기라 쟤냐? 그라몬 어데 다쳤단 말인가?”
“그렇지는 않은 거 같고.....”

“늘 배창자가 아프다더니 속병이 생긴 게로구나. 객지로 돌아댕기며 굶기도 오지게 굶었을까고.”
그럴 줄 알았다는 듯 엄마는 아무렇지 않게 말했다.

“㉠ 참, 양식 떨어졌을 김데 너그들 저녁밥은 우쨌노?”
“장 씨 집에서 라면 두 봉지 꺾다 묵었지예.”
“아부지는?”
“읍내서 묵고 왔다 갑디더.”

자전거 짐받이에 얹힌 함지박을 고무줄로 묶고, 나는 친척히 자전거를 몰았다. 함지박 쪽에서 쿵쿵한 비린내가 코끝을 따라 왔다. 그 냄새는 이미 후각에 익은 엄마의 냄새이기도 했다.

“㉡ 엄마, 자전거에 타예. 그라몬 퍼뜩 갈 수 있을 김데.”

다른 때 같으면 사양했을 엄마가 오늘따라 아무 말없이 안장 앞쪽 파이프에 머릿수건을 깔고 올라앉았다. 내색은 없었지만 엄마 역시 아버지를 빨리 만나고 싶은 모양이었다. 힘주어 페달을 밟자 엄마 온몸에서 풍겨 나는 비린내가 내 쪽으로 훑어왔다.

“쫓쫓, 그래도 숨질이 붙었으몬 **더러 처자속은 보고 싶은 지 집구석이라고 찾아드니.....** 원쑤도, 그런 원쑤가 어딴노. 그런 남정네가 이 시상에 뻗어나 뉘꼬. 그래 굶오미 맥 놓고 떠돌아댕기도 우째 안죽 객사를 안 하는공 모리겠데이.”
엄마는 한숨 끝에 아버지를 두고 혼잣말을 중얼거렸다.

피약벌 아래 장터마다 싸다니느라 까맣게 그을린 엄마 얼굴을 떠올리자, 나는 공연히 코허리가 쟁하게 쓰렸다. 엄마는 키가 작고 몸매가 깡마른데다 살결이 검어, 불 때마다 안쓰럽고 측은한 마음이 마음 귀퉁이에 그늘을 만들었다. 그럴 적마다 아버지에 대한 원망 또한 반사적으로 감정을 자극했다. 아버지에 대한 원망 섞인 감정은 증오라기보다 썰물이 되어 당신을 내 옆에서 멀리로 밀어내는 작용을 했다. 아버지에 대한 그런 마음은 엄마의 경우도 비슷하리라 여겨졌다. 다만 **순환의 법칙을 좇아** 한때의 미움도 시간이 흐르면 연민으로 녹아, 끝내 **밀물**이 되어 엄마 여윈 마음을 다시 채워 주리란 점만 다를 뿐이었다.

- 김원일, 「연(薦)」 -

31. 윗글의 서술상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장면마다 다른 서술자를 설정하여 사건을 다각도로 제시하고 있다.
- ② 사건을 체험한 서술자가 중심인물과 관련된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고 있다.
- ③ 외부 이야기에서 내부 이야기로 장면을 전환하면서 사건을 전개하고 있다.
- ④ 작품 밖의 서술자가 중심인물의 내적 갈등이 해소되는 과정을 서술하고 있다.
- ⑤ 동시에 일어나는 두 개의 사건을 병렬적으로 배치하여 긴장감을 조성하고 있다.

32. ㉠ ~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저수지 근처로 이사를 가자는 아버지의 제안을 못마땅해 하는 어머니의 푸념이 담겨 있다.
- ② ㉡: 뜬금없이 많은 연을 만드는 아버지의 행동에 대해 의아해 하는 ‘나’의 심리가 담겨 있다.
- ③ ㉢: 생계를 위한 경제적 활동에 얽매고 싶지 않은 아버지의 삶의 태도가 담겨 있다.
- ④ ㉣: 어려운 가정 형편 속에서 자식들을 걱정하는 어머니의 애정이 담겨 있다.
- ⑤ ㉤: 아버지의 끼니를 염려하는 마음에 어머니를 빨리 모셔가려는 ‘나’의 의도가 담겨 있다.

33.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이 작품은 역마살을 타고나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아버지의 삶과, 생계를 책임진 채 아버지에 대한 원망과 애정을 안고 살아가는 어머니의 삶을 그리고 있다. 작품의 주요 소재인 ‘연’은 바람이 부는 대로 하늘을 날아다니지만 연줄로 ‘열레’에 매여 있어 지상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 ‘연’과 ‘열레’의 이러한 속성은 이리저리 떠돌다 가족들이 있는 집으로 돌아오는 아버지의 삶을 형상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 ① ‘장터를 떠돌며 어물 장사를’ 하는 것에서, 가족의 생계를 떠안고 사는 어머니의 삶을 엿볼 수 있어.
- ② ‘목적이 없어도 어떤 때는 연맹크로 그냥 멀리로 떠나 댕기’는 삶에 대해 말한 부분에서, 아버지가 하늘을 나는 연처럼 자유롭게 떠돌며 살기를 원한다는 것을 알 수 있어.
- ③ ‘내 같은 사람이 쓸모없이 보일란지 몰라도’라고 말한 부분에서, 아버지가 역마살로 인해 무능할 수밖에 없었던 자신의 삶을 후회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어.
- ④ ‘더러 처자속은 보고 싶은 지 집구석이라고 찾아’든다는 말에서, 어머니는 아버지에게 가족들이 열레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어.
- ⑤ ‘순환의 법칙을 좇아’ 미움도 시간이 흐르면 연민이 되어 ‘밀물’처럼 마음을 채워 준다는 부분에서, 아버지에 대한 원망과 애정을 안고 사는 어머니에 대한 나의 인식을 엿볼 수 있어.

[34 ~ 3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내 벗이 몇이나 하니 수석(水石)과 송죽(松竹)*이라.
 동산(東山)에 달 오르니 그 더욱 반갑구나.
 두어라 이 다섯 벗과 또 더하여 무엇하리.
 <제1수>

구름 빛이 좋다 하나 검기를 자로 한다.
 바람 소리 맑다 하나 그칠 적이 하노매라.
 좋고도 그칠 뉘 없기는 물뿐인가 하노라.
 <제2수>

① 꽃은 무슨 일로 피면서 쉬이 지고
 풀은 어이 하여 푸르는 듯 누르나니
 아마도 변치 아닐손 바위뿐인가 하노라.
 <제3수>

더우면 꽃 피고 추우면 잎 지거늘
 술아 너는 어찌 눈서리를 모르느냐.
 구천(九泉)의 뿌리 곧은 줄을 글로 하여 아노라.
 <제4수>

나무도 아닌 것이 풀도 아닌 것이
 곧기는 뉘 시키며 속은 어이 비었느냐.
 저렇게 사시(四時)에 푸르니 그를 좋아하노라.
 <제5수>

작은 것이 높이 떠서 만물을 다 비추니
 밤중에 광명(光明)이 너만한 이 또 있느냐.
 보고도 말 아니 하니 내 벗인가 하노라.
 <제6수>
 - 윤선도, 「오우가(五友歌)」 -

* 송죽: 소나무와 대나무.

(나)
 작년 가을에 이웃집에서 복수초를 나누어 받았다. 뿌리는 구근이 아니라 흑갈색 잔뿌리와 검은 흙이 한데 엉겨 있고, 키는 땅에 닿을 듯이 작는데 잎도 새의 깃털처럼 잘게 갈라져 있어서 전체적으로 볼륨이 느껴지지 않아 하찮은 잡초처럼 보였다. 그전에 나는 복수초라는 화초를 사진으로 본 적은 있지만 실물을 본 적은 없기 때문에 그게 과연 눈 속에서 핀다는 그 복수초인지 잘 믿기지 않았다. 생각해서 나누어 준 분 앞이라 당장 양지바른 곳에 심긴 했지만 곧 가을이 깊어지니 워낙 시원치 않아 보이던 이파리들은 자취도 없어지고 나 역시 그게 있던 자리조차 기억 못하게 되었다.

아마 3월이 되자마자였을 것이다. 샛노란 꽃이 두 송이 땅에 닿게 피어 있었다. 하도 키가 작아서 하마터면 밟을 뻔했다. 그러나 빛깔은 진한 황금색이어서 아직 아무것도 싹트지 않은 황량한 마당에 몹시 생똥스러워 보였다. 그리고 곧 큰 눈이 왔다. 아무리 눈 속에도 피는 꽃이라고 알려져 있어도 그 작은 키로 건디기엔 너무 많은 눈이었다. 나는 눈으로는 눈의 무게를 이기지 못해 꺾인 듯이 축 처진 소나무 가지를 바라보면서 마음으로는 그 샛노란 꽃의 속절없음을 생각하고 있었다. 대문 밖의 눈은 쳐 주었지만 마당의 눈은 그대로 방치해 두었기 때문에 녹아 없어지는 데 며칠 걸렸다. 놀랍게도 제일 먼저 녹은 데가 복수초 언저리였다. ㉠ 고 작은 풀꽃의 머리칼 같은 뿌리가 땅속 어드메서 따뜻한 지열을 길어

올렸기에 그 두터운 눈을 녹이고 더욱 샛노랗게 더욱 싱싱하게 해를 보고 있었다. 온종일 그렇게 피어 있다가 해질 무렵에는 타원형으로 오므라든다. 그러다가 아주 시들어 버릴 줄 알았는데 다음날 해만 뜨면 다시 활짝 핀다. 그러나 마냥 그럴 수는 없는 일이다. 곧 안 깨어나고 저 버리는 날이 있겠기에 그게 피어 있는 동안만이라도 누구에게나 보여 주고 자랑하고 싶어서 나는 집에 손님만 오면 그걸 구경시킨다. 그러나 내가 기대하는 것만치 신기해 해 주는 이가 별로 없다. 어떤 친구는 마당에 피는 꽃이 백 가지도 넘는다고 해서 부러워했는데 이런 것까지 쳐서 백 가지나고 기막힌 듯이 몰었다. 듣고 보니 내가 그런 자랑을 한 적이 있는 것 같았다. 그러나 거짓말을 한 건 아니다. 그 친구는 아마 기화요초*가 어우러진 광경을 상상했었나 보다. 내가 백 가지도 넘는다고 한 것은 복수초 다음으로 피어날 민들레나 제비꽃, 할미꽃까지 다 합친 수효다. 올해는 복수초가 1번이 되었지만 작년까지만 해도 산수유가 1번이었다. 곧 4월이 되면 목련, 매화, 살구, 자두, 앵두, 조팝나무 등이 다투어 꽃을 피우겠지만 그래도 조금씩 날짜를 달리해 순서대로 피면서 그 그늘에 제비꽃이나 민들레, 은방울꽃을 거느린다. 꽃이 제일 먼저 핀 것은 복수초지만 잎이 제일 먼저 흙을 뚫고 모습을 드러낸 것은 상사초고 그 다음이 수선화다. 수선화는 벚꽃이 필 무렵에나 필 것 같고 상사초는 잎이 시들어 지상에서 사라지고 나서도 한참이나 더 있다가 꽃대를 밀어 올릴 것이다. 이렇게 그것들을 기다리고 마중하다 보니 내 머릿속에 ㉡ 출석부가 생기게 되고, 출석부란 원래 이름과 함께 번호를 매기게 되어 있는지라 100번이 넘는다는 걸 알게 되었다. 이름을 모르면 100번이라는 숫자도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그것들이 순서를 지키지 않고 멋대로 피고 지면 이름이 궁금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내가 출석을 부르지 않아도 그것들은 올 것이다. 그대로 나는 그것들이 올해도 하나도 결석하지 않고 전원 출석하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것들이 뿌리로, 씨로 잠든 땅을 함부로 밟지 못한다. 그것들이 왕성하게 자랄 여름에는 그것들이 목마를까봐 마음 놓고 어디 여행도 못 할 것이다. 그것들은 출석할 때마다 내 가슴을 기쁨으로 뛰놀게 했다. 100석구는 대식구다. 나에게 그것들을 부양할 마당이 있다는 걸 생각만 해도 뿌듯한 행복감을 느낀다. 내가 이렇게 사치를 해도 되는 것일까. 괜히 송구스러울 때도 있다.

그것들은 내가 기다리지 않아도 올 것이다. 그래도 나는 기다린다. 기다리는 기쁨 때문에 기다린다.
 - 박완서, 「꽃 출석부 1」 -

* 기화요초: 옥같이 고운 풀에 핀 구슬같이 아름다운 꽃.

- 34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색채어를 사용하여 대상을 감각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 ② 설의적 표현을 통해 대상에 대한 그리움을 강조하고 있다.
 - ③ 음성 상징어를 사용하여 상황을 생동감 있게 그리고 있다.
 - ④ 말을 건네는 방식을 통해 대상과의 유대감을 드러내고 있다.
 - ⑤ 반어적 표현을 사용하여 심리 변화의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35. <보기>를 바탕으로 (가)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가)의 화자와 (나)의 글쓴이는 모두 관찰한 경험을 바탕으로 사물의 속성을 인식하고 있다. 사물의 속성을 인식하는 것은 사물의 모습에서 추상적인 의미를 발견해 내는 것이다. 그런데 관찰된 겉모습은 사물의 속성을 인식하는 데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방해가 되기도 한다.

- ① (가)의 <제4수>에서 화자는 눈서리 속에서도 잎이 지지 않는 모습에서, 시련에 굴하지 않는 굳건함을 '솔'의 속성으로 인식하고 있군.
- ② (가)의 <제5수>에서 화자는 곧고 사계절 그 푸름을 잃지 않는 모습에서, 본모습을 지켜 나가는 꿋꿋함을 '대나무'의 속성으로 인식하고 있군.
- ③ (가)의 <제6수>에서 화자는 '달'이 높이 떠 있는 것이, 보고도 말 아니 하는 과묵함이라는 속성을 인식하는 데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고 있군.
- ④ (나)에서 글쓴이는 하얗은 잡초처럼 보이는 겉모습으로 인해 눈 속에서 피는 '복수초'의 강인함이라는 속성을 한동안 인식하지 못했던 것이군.
- ⑤ (나)의 글쓴이는 작은 키로는 건디기 어려운 두터운 눈을 녹이고 꽃을 피운 모습에서, 역경을 이겨 내는 생명력을 '복수초'의 속성으로 인식하고 있군.

36. <보기>는 (가)의 시상 전개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가)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제1수	제2, 3수	제4, 5수	제6수
A	B	C	D

- ① A에서는 중심 소재를 무생물, 생물, 천상의 자연물로 묶어 제시하고 있다.
- ② B에서는 대조의 방식을 활용하여 중심 소재를 예찬하고 있다.
- ③ C에서는 B와 유사하게 대구의 방법을 활용하여 시적 운율감을 이어가고 있다.
- ④ B와 C에서 중심 소재로 향했던 화자의 시선이 D에서는 내면으로 이동하고 있다.
- ⑤ B, C, D의 각 수에서는 A에서 언급된 중심 소재를 순차적으로 배치하고 있다.

37. '꽃'에 대한 심리적 태도를 고려할 때 ㉠과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에는 화자의 동질감이, ㉡에는 글쓴이의 이질감이 담겨 있다.
- ② ㉠에는 화자의 안도감이, ㉡에는 글쓴이의 불안감이 담겨 있다.
- ③ ㉠에는 화자의 거리감이, ㉡에는 글쓴이의 친근감이 담겨 있다.
- ④ ㉠에는 화자의 비애감이, ㉡에는 글쓴이의 애상감이 담겨 있다.
- ⑤ ㉠에는 화자의 자괴감이, ㉡에는 글쓴이의 만족감이 담겨 있다.

38. (나)의 내용을 고려할 때, ㉠에 담긴 의미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더 많은 종류의 꽃들을 마당에 심고 싶어 하는 글쓴이의 소망이 담겨 있다.
- ② 소박한 꽃보다 화려한 꽃의 가치를 우선시했던 자신을 돌아보는 태도가 담겨 있다.
- ③ 추웠던 겨울이 지나고 꽃이 피는 봄이 빨리 오기를 기다리는 글쓴이의 조급함이 담겨 있다.
- ④ 자연의 질서에 따라 차례대로 피고 지는 꽃들에 대한 글쓴이의 애정과 기대감이 담겨 있다.
- ⑤ 소중하게 가꾼 꽃들을 자신만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과 함께 즐기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다.

[39 ~ 41]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1
양철로 만든 달이 하나 수면 위에 떨어지고
부쉬지는 얼음 소리가
날카로운 호적같이 옷소매에 스며든다.

해맑은 밤바람이 이마에 서리는
여울가 모래밭에 홀로 거닐면
노을에 빛나는 은모래같이
호수는 한포기 화려한 꽃밭이 되고

여윈 추억의 가지가지엔
조각난 빙설(氷雪)이 눈부신 빛을 하다.

2
낮은 고향의 허리띠같이
강물은 길—게 얼어붙고

차창에 서리는 황혼 저 멀—리
노을은
나 어린 향수(鄉愁)처럼 희미한 날개를 펴고 있었다.

3
상상한 잡목림 사이로
한낮이 겨운 하늘이 투명한 기폭(旗幅)을 떨어뜨리고

푸른 옷을 입은 송아지가 한마리
조그만 그림자를 바람에 나무끼며
서글픈 얼굴을 하고 논둑 위에 서 있다.
- 김광균, 「성호부근」 -

(나)
갈아놓은 눈고랑에 고인 물을 본다.
마음이 행복해진다.
나뭇가지가 꾸부정하게 비치고
햇살이 번지고
날아가는 새 그림자가 잠기고
나의 얼굴이 들어 있다.
늘 홀로이던 내가
그들과 함께 있다.
누가 높지도 낮지도 않다.
모두가 아름답다.
그 안에 나는 거꾸로 서 있다.
거꾸로 서 있는 모습이
본래의 내 모습인 것처럼
아프지 않다.
산도 곁에 거꾸로 누워 있다.
늘 떨며 우왕좌왕하던 내가
저 세상에 건너가 서 있거나 한 듯
무심하고 아주 선명하다.
- 이성선, 「논두렁에 서서」 -

39.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와 (나)는 음성 상징어를 사용하여 대상의 생동감을 강조하고 있다.
- ② (가)와 (나)는 현재 시제를 활용하여 시적 상황에 주목하도록 하고 있다.
- ③ (가)와 (나)는 청자와 대화하는 방식을 활용하여 주제를 형상화하고 있다.
- ④ (가)와 달리 (나)는 시선을 원경에서 근경으로 이동하면서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 ⑤ (나)와 달리 (가)는 동일한 시어를 반복하여 리듬감을 형성하고 있다.

40. <보기>를 바탕으로 (가)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가)는 숫자로 구별된 세 개의 장면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장면에서는 다양한 이미지를 통해 겨울 호수와 그 부근의 풍경이 형상화되고, 이 과정에서 애상적 정서가 환기된다.

- ① '1'에서는 '한포기 화려한 꽃밭'으로 표현된 호수의 모습에 '양철'과 '얼음'이 환기하는 날카롭고 차가운 감각이 연결되면서 겨울 호수의 이미지가 형상화되고 있다.
- ② '1'에서 '달이 하나 수면 위에 떨어지'는 모습은 겨울 호숫가를 '홀로' 거니는 화자의 상황과 맞물리면서 쓸쓸한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 ③ '2'의 '강물'과 '노을'은 '낮은 고향'과 '향수'의 이미지로 연결되면서 고향에 대한 그리움의 정서를 떠올리게 한다.
- ④ '2'의 '희미한 날개를 펴고 있었다'는 '3'의 '논둑 위에 서 있다'와 연결되면서, '송아지'의 '서글픈 얼굴'이 드러내는 정서가 극복될 수 있는 가능성을 암시하고 있다.
- ⑤ '1', '2', '3'에서는 각각 '조각난 빙설', '얼어붙은 강물', '상상한 잡목림'과 같은 시구가 스산한 분위기를 자아내면서 애상적 정서를 심화하고 있다.

41.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화자는 '늘 떨며 우왕좌왕하던' 과거 자신의 모습과 '곁에 거꾸로 누워 있는 '산'의 모습을 동일시하고 있군.
- ② '누가 높지도 낮지도 않'은 모습을 '아름답다'고 한 것에서 화자가 물에 비친 세상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음을 알 수 있군.
- ③ '거꾸로 서 있는 모습'을 '아프지 않'은 것으로 받아들이는 화자에게서 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부정적이지 않은 것으로 수용하는 태도가 드러나는군.
- ④ '늘 홀로'라고 생각했던 화자는 '나뭇가지', '햇살', '새 그림자'와 '나의 얼굴'이 '함께 있는' 모습에서 자신이 다른 존재들과 공존하고 있음을 발견하는군.
- ⑤ 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무심하고 아주 선명하다'라고 한 것에서, 화자가 물을 보는 행위를 통해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을 달리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군.

[42 ~ 4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앞부분 줄거리] 군관 직책의 배비장은 제주 목사가 벌인 잔치에 자신은 여색을 멀리한다며 참석하지 않는다. 이에 제주 목사는 기생 애랑을 시켜 배비장을 유혹하게 하고, 애랑은 자신에게 반한 배비장에게 삼경에 집으로 오라는 편지를 보낸다.

강호에 병이 들어 덧없이 죽겠더니, 낭자 회답이 반갑다. 삼경에 기약 두고, 해 지기만 바라더니, 석양이 다 저물어 간다. 방자 입시(入侍) 보내고 빈방 안에 문을 닫고 그 여자에게 잘 비려고 다시 의관을 차릴 적에, 외울 망건 정주 탕진, 쾌자, 전립 관대 띠에 동계*를 차 제법 그럴싸하고 빈방 안에 혼자 우뚝 서서 도깨비 들린 듯이 혼잣말로 두런거리며 연습 삼아 하는 말이,

“가만가만 걸어가서 여자 문 앞에 들어서며 기침 한 번을 가만히 하면 그 여인이 기척 채고 문을 필쩍 열겠다. 걸음을 한번 팔자걸음으로 이렇게 걸어 들어가, 옛말에 이르기를, ‘수인사(修人事) 대천명(待天命)이라.’ 하니, ㉠ 여자에게 한번 이렇게 군대의 예절로 비웠다.”

한창 이리 연습할 제, 방자놈이 뜻밖에 문을 필쩍 열며, “나리, 무엇하오?”

배비장 깜짝 놀라, “너 벌써 왔느냐?”

“예, 군례 전에 대령하였소.”

“㉡ 이놈, 내 깜짝 놀라 바로 땀이 난다.”

하며 동개한 채로 썩 나서니, 달이 진 산에 까마귀 울고, 고기잡이 불빛이 물에 비친다. 앞개울에 있던 사람은 돌아가고, 봄바람에 학이 운다.

“앞서 기약 맺은 낭자, 이 밤중에 어서 찾아가자.”

거들거려 가려 할 제 방자놈 이른 말이,

“나으리, 생각이 전혀 없소. 밤중에 유부녀 희롱 가오면서 비단 옷 입고 저리 하고 가다가는 될 일도 안 될 것이니, 그 의관 다 벗으시오.”

“벗으면 초라하지 않겠느냐?”

“초라하거든 가지 마옵시다.”

“이 애야, 요란히 굴지 마라. 내 벗으마.”

활짝 벗고 알몸으로 서서,

“어떠하냐?”

[A]

“그것이 참 좋소마는, 누가 보면 한라산 매 사냥꾼으로 알겠소. 제주 인물 복색으로 차리시오.”

“제주 인물 복색은 어떤 것이냐?”

“개가족 두루마기에 노뽕거지*를 쓰시오.”

“그것은 너무 초라하구나.”

“초라하거든 그만두시오.”

“말인즉 그러하단 말이다. 개가족이 아니라, 도야지가죽이라도 내 입으마.”

하더니, 구록피(狗鹿皮) 두루마기에 노뽕거지를 쓰고 나서서 앞뒤를 살펴보며,

“이 애야, 범이 보면 개로 알겠다. 군기총(軍器銃) 하나만 내어 들고 가자.”

“무섭거든 가지 마옵시다.”

“이 애야, 그러하단 말이냐? 네 성격 그러한 줄 몰랐구나.

㉢ 정 못 갈 터이면, 내 업고라도 가마.”

배비장이 뒤따라가며 하는 말이,

“기약 둔 사랑하는 여자, 어서 가 반겨 보자.”

서쪽으로 낸 대나무로 엮은 창 돌아들어, 동쪽에 있는 소나무로 만든 댓들에 다다르니, 북쪽 창에 밝게 켜 등불 하나만이 외로이 있는데, 밤은 깊은 삼경이라. 높은 담 구멍 찾아가서 방자 먼저 기어들며,

“취, 나리 잘못하다가는 일 날 것이니, 두 발을 한데 모아 요령 있게 들이미시오.”

배비장이 방자 말을 옹계 듣고 두 발을 모아 들이민다. 방자놈이 안에서 배비장의 두 발목을 모아 쥐고 힘껏 잡아당기니, ㉣ 부른 배가 딱 걸려서 들도 나도 아니하는구나. 배비장 두 눈을 희게 뜨고 이를 갈며,

“좀 놓아라고!”

하면서, 죽어도 문자(文字)는 쓰던 것이었다.

“포복불입(飽腹不入)하니 출분이기사(出糞而幾死)로다.”*

방자가 안에서 웃으며 탁 놓으니, 배비장이 곤두박질하였다가 일어나 앉으며 하는 말이,

“메사가 순리로 아니 되니 큰 낭패로다. 산모의 해산법으로 말하여도 아이를 머리부터 낳아야 순산이라 하니, 내 상투를 들이밀 것이니 잘 잡아당겨라.”

방자놈이 배비장의 상투를 노뽕거지 쓴 채 왈각 잡아당기나, 아무리 하여도 나온 줄 모르겠다. 죽을 고비에서 살아났으니, 목숨은 원래 하늘에 달렸음이라. 뽕 하고 들어가니 배비장이 아프단 말도 못 하고,

“㉤ 어허, 아마도 내 등에는 끈질끈자관*을 놓았나 보다.”

(중략)

배비장이 한편 좋기도 하고 한편 조심도 되어, 가만가만 자취 없이 들어가서 이리 기웃 저리 기웃 문 앞에 가서 사뿐사뿐 손가락에 침을 발라 문 구멍을 배비작 배비작 뚫고 한 눈으로 들여다보니, 깊은 밤 등불 아래 앉은 저 여인, 나이 겨우 이팔의 고운 태도라, 켜 놓은 등불이 밝다 한들 너를 보니 어두운 듯, 피는 복숭아꽃이 굵다 하되 너를 보니 무색한 듯, 저 여인 거동 보소 김해 간죽 백통관에 삼등초를 서뽕 담아 청동 화로 백탄 불에 사뿐 질러 빨아낸다. 향기로운 담배 연기가 한 오라기 보랏빛으로 피어나니 붉은 안개 피어 돌는 듯, 한 오리 두 오리 풍기어서 창 구멍으로 돌아 나온다. 배비장이 그 담뱃대를 손으로 움켜져 먹다가 생 담뱃대가 콧구멍으로 들어가서 재채기 한 번을 악각 하니, 저 여인이 놀라는 체하고 문을 필쩍 열뜨리고,

“도적이야.”

소리 하니, 배비장이 영겁결에,

“문안드리오.”

저 여인이 보다가 하는 말이,

“㉥ 호랑이를 그리다가 숨쉴 서둘러서 강아지를 그림이로고, 아마도 뉘 집 미친개가 길 잘못 들어 왔나 보다.”

인두관으로 한 번 지끈 치니 배비장이 하는 말이,

“나는 개가 아니오.”

“그러면 무엇이냐?”

“배 걸터쇠요.”

- 작자 미상, 「배비장전(裵裵將傳)」 -

* 동개: 활과 화살을 찬 주머니.

* 노뽕거지: 노끈으로 만든 뽕거지.

* 포복불입(飽腹不入)하니 출분이기사(出糞而幾死)로다.: 배가 불러 들어갈 수 없으니 똥이 나와 죽겠구나.

* 끈질끈자관: 고누관. '고누'는 장기와 비슷한 옛날의 놀이.

42.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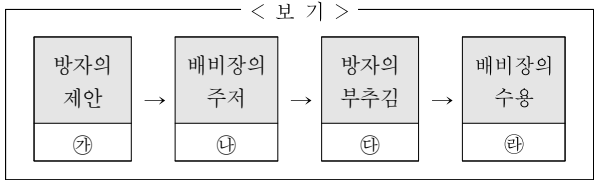
[3점]

< 보 기 >

「배비장전」은 판소리계 소설로, 판소리 창자의 말투가 고스란히 드러나 있고 리듬감이 있는 율문체를 통해 당대 서민들의 삶과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또한 다른 사람의 책략에 의해 주인공이 금욕적 다짐을 훼손당해 웃음거리가 되는 남성 궤절형 모티프를 바탕으로 하는 서사 구조를 보여 준다. 이를 통해 지배 계층의 허세에 대한 풍자와 조롱을 드러내고 신분 질서가 무너져 가는 당대 시대상 등을 반영하고 있다.

- ① ‘가만가만 자취 없이 들어가서 이리 기웃 저리 기웃’에서 글자 수를 규칙적으로 반복하여 인물의 행동을 리듬감 있게 묘사하는 율문체를 확인할 수 있겠군.
- ② ‘저 여인 거동 보소’라는 표현에서 청중을 향한 판소리 창자의 목소리가 직접 드러나는 판소리계 소설로서의 특징을 확인할 수 있겠군.
- ③ 배비장이 방자에 의해 ‘구룩피 두루마기에 노평거지’까지 쓰면서 궤절한 상황에서 서민 계층에 의해 조롱당하는 지배 계층의 모습을 엿볼 수 있겠군.
- ④ 담 구멍에 걸려 있는 상황에서도 ‘죽어도 문자는 쓰’는 배비장의 모습을 통해 지배 계층의 허세에 대한 풍자를 엿볼 수 있겠군.
- ⑤ 배비장이 애랑을 만나자마자 ‘배 걸덕쇠요.’라고 격식을 차리며 말하는 데서 신분 질서가 무너져 가는 당대의 시대적 현실을 확인할 수 있겠군.

43. [A]의 재담 구조를 <보기>와 같이 도식화할 때, 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에서 방자는 배비장의 권위를 깎아내리는 말을 하고 있다.
- ② ㉡에서 배비장은 자신의 체면을 생각하며 반응하고 있다.
- ③ ㉢에서 방자는 긍정적인 결과를 제시하며 설득하고 있다.
- ④ ㉣에서 배비장은 방자의 말에 할 수 없이 호응하고 있다.
- ⑤ ㉠~㉣에서 방자가 대화를 주도하며 재담의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

44.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애랑의 환심을 사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는 배비장의 모습이 나타나 있다.
- ② ㉡: 방자에게 자신의 행동을 들켰을까 봐 당황하는 배비장의 태도가 나타나 있다.
- ③ ㉢: 애랑을 만나고 싶어 하는 배비장의 간절한 마음이 나타나 있다.
- ④ ㉣: 방자에 대한 불만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배비장의 모습이 나타나 있다.
- ⑤ ㉣: 배비장의 정체를 알고도 짐짓 모른 채하는 애랑의 태도가 나타나 있다.

45. ㉣의 상황을 나타내는 한자 성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진퇴양난(進退兩難)
- ② 중과부적(衆寡不敵)
- ③ 역지사지(易地思之)
- ④ 난형난제(難兄難弟)
- ⑤ 고장난명(孤掌難鳴)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십시오.